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구를 제작하여 이용하는 존재이다.
- ② 다양한 놀이를 통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④ 문자와 같은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문화를 계승하는 존재이다.
- 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존재이다.

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이름[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되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곤궁에 빠져들게 된다. 선왕(先王)은 이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禮)를 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 ① 갑: 각자가 신분과 직책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백성을 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 ③ 을: 타고난 모든 욕망을 제거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을: 예와 같은 외면적인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⑤ 갑, 을: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하늘이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하여 선(善)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惡)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 권능이 자기에게 있어 금수(禽獸)와 같지 않으므로 선을 행하면 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내 죄가 된다.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성(性)이 아니다.

- ① 사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②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이다.
- ③ 인간과 동물은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도덕적인 삶을 위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버려야 한다.
- ⑤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도덕적 행위를 한 후에 얻을 수 있다.

4. 한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안[內]을 버리고 밖[外]을 구하려 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밖의 대상을 잊고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이 둘은 모두 양 극단에 막혀 있다.
 을: 과거의 모든 성인(聖人)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갔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證得)하지 않음이 없었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 온 길이다.

- ① 개인의 해탈을 위해 극단적인 고행에 힘써야 하는가?
- ②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③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불성(佛性)을 형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가?
- ⑤ 깨달음을 위해 경전 공부보다 아닌 참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는가?

5.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굳센 것을 뚫는다. 형체가 없어야만 틈이 없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으로 나는 무위(無爲)의 유익함을 알겠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위의 유익함에 견줄 만한 것은 천하에 드물다.

- ① 분별적인 지혜를 갖추어 도덕규범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② 탐욕을 버리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 ③ 성인이 되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자신의 주관을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 ⑤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예(禮)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6. (가)의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성(性)은 곧 이(理)이다. 마음[心]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한다.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오로지 선하다.</p> <p>을: 심(心)은 곧 이이다.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드러낸 것은 의(意)이며, 의의 본체가 지(知)이고 의가 있는 곳이 물(物)이다.</p>
(나)	

— <보 기> —

ㄱ. A: 타고난 양지(良知)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ㄴ. B: 도덕적 삶과 도덕적 실천에는 선후(先後)가 없다.
 ㄷ. B: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ㄹ. C: 개별 사물의 이치는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고통을 느낄 때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는 쾌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쾌락은 목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주의 건강과 번영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

- ① 갑은 참된 쾌락을 위해 허황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고통이 없는 정신적 쾌락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행복을 위해 은둔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본다.

8.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바뀌는 것은 기(器)이다. 대개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아 그 기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을: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 사람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禽獸)의 나라가 될 것이다.

- ① 갑은 동양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유교적 가치를 토대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민생 안정을 위해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신분 차별을 극복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성리학적 이념에서 벗어나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9. 다음 중세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최고의 선은 신이고,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구현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

- ① 인간은 현세에서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② 악은 선과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③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④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이성적 인식의 대상일 뿐이다.
 ⑤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으므로 신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10. 다음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의존해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 묶음에서 어느 하나를 떼어낸다면 다른 한쪽은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바른 수행을 통해 열반(涅槃)에 이르러야 한다.	√			√	√
고통의 소멸을 위해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한다.	√	√		√	
인간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	√		√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연설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중음(善) 자체’를 보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 저마다 여생 동안 번갈아 가며 나라와 개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으로 소일하지만 차례가 오면 나라를 위해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①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 ②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 ③ 감각과 경험을 토대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
- ④ 사회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선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 기개와 욕망을 잘 조절해야 한다.

12.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라는 정언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정언명령만이 실천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명령들은 모두 의지의 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법칙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① 도덕의 궁극 목적은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인가?
- ②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③ 도덕법칙은 사회가 의무로 요구하는 타율적인 명령인가?
- ④ 개개인이 의욕한 모든 준칙이 곧 보편적인 도덕법칙인가?
- ⑤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인가?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을: 인간이 가진 무지 중 가장 큰 무지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 ① 갑은 인간보다는 자연을 철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② 갑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는 객관적 진리를 중시한다.
- ③ 을은 인간이 선을 알고도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참된 앎과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명예로운 삶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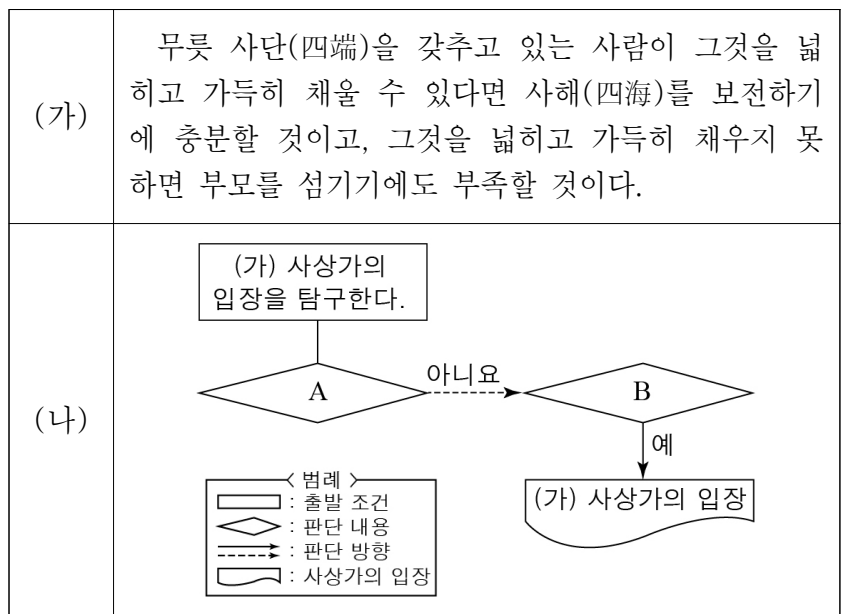
14.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사람의 몸이 생겨난다. 이런 까닭에 이와 기가 서로 발(發)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

을: 이와 기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乘] 것은 맞지만,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① 갑은 사단을 이가 발한 감정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 ④ 을은 선의 실현을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칠정을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군주가 인의(仁義)를 해치면 교체할 수 있는가?
 ㄴ. A: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하는가?
 ㄷ. B: 대인과 소인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ㄹ. B: 예(禮)를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가. 오감(五感)에 의존하여 만물의 근원을 깨달아야 한다.
 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소요(逍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의로움[義]을 실현해야 한다.
 라.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덕과 악덕은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 구별된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을: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자연 그 자체, 즉 영원하고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갑: 선악은 공감이나 주관적 감정에 의해 판단된다.
 ② 갑: 감정은 이성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이어야만 한다.
 ③ 을: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④ 을: 이성적 관조로 신을 인식해야 최상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⑤ 갑, 을: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만이 직접적인 실천 동기가 된다.

18.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 쾌락 또는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이다.
 ② 행위의 선악은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이다.
 ④ 공동체의 행복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일 뿐이다.
 ⑤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

19.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악덕들 사이의 중용이다. 두려움 및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바로 중용이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들면 무모한 사람이 된다.

- ①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의 상태가 존재한다.
 ②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계의 모방에 불과하다.
 ③ 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④ 세계에서 고유한 목적을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다.
 ⑤ 품성적 덕은 도덕적 행위의 습관화로 얻어지는 것이다.

2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들이다. 이상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얻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이다.
 을: 진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음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철학의 제1원리이다.

— <보 기> —
 가. 갑: 자연 과학적 지식으로 인간의 생활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나. 갑: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다. 을: 확실한 지식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연역된다.
 라. 갑, 을: 참된 지식은 이성보다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된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